



노랑해전과 성웅 이순신

1598년 9월 16일의 명량대첩 후 조선 수군통제사 이순신 장군은 3도 수군 본영을 10월 29일 목포 앞바다에 있는 고하도로 옮겨 108일 동안 주둔한다. 이는 서해로 북상해 한강을 통해 한양에 진입하고, 육군에 군수품을 지원하려는 왜의 전술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장군은 이곳에 주둔하는 동안 많은 판옥선을 건조하고 총통을 새로 만들며, 소금을 구워 팔아 많은 수군 병력과 군량을 보충했다.

1598년 8월 18일 조·일전쟁의 전범인 왜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豊臣秀吉)가 급사한다. 조선 육지 각처에서 명군과 조선군에 고전하며 쫓긴 끝에 왜군은 부산과 울산, 사천과 순천에 집결해 성을 쌓고 조선에서 철수하려 한다.

이때 순천시 해룡면 신성포 안에 있는 왜교성에 주둔한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小西行長) 소서행장은 군사가 1만 4,000명이었는데, 왜교성 북쪽 근방의 검단산성에는 명나라 장군 유정(劉楨, 劉楨)이 지휘하는 명군 1만 5,000명과 조선 육군 도원수 권율이 이끄는 2만여 명의 조선군이 주둔하며 대치하고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철군하는 왜군을 해상에서 봉쇄하고자 1598년 2월 17일 수군 본영을 완도 고금도로 옮기는데, 이는 철수하는 적의 주력 쪽으로 바짝 다가가려는 이유였다. 명의 수군 도독 진린(陳璘, 陳璘)도 5,000명의 수군을 이끌고 고금도로 합류한다.

이순신 장군은 유정이 지휘하는 명나라 육군과 수륙 협공작전으로 여섯 차례 순천 왜교성 전투를 치러 명의 수군이 피해를 보지만, 해상 봉쇄의 반원진을 풀지 않고 계속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그해 11월 11일 이순신 장군은 조·명 연합함대의 주둔지이자 수군 본영을 신성포 앞바다에 있는 장도와 송도 및 묘도로 옮긴 후 반원진으로 더욱 해상 봉쇄를 강화한다.

결국 왜장 고시니 유키나가는 이순신 장군에게 뇌물을 주고 길을 열어 줄 것을 호소했으나, 이순신 장군은 단호하게 거절한다. 그러자



고니시 유키나가나는 명나라 장수 유정과 진린에 뇌물을 주고 길을 열어달라 회유한다. 그리하여 일본선 1척이 사천 쪽으로 빠져나갔다.

노량해협을 거쳐 일본의 연합함대가 고니시 유키나가를 구하러 올 것을 예상한 이순신 장군은 1598년 11월 18일 오후 10시 밤에 노량 쪽으로 나아가 남해 서북단의 관음포 쪽에는 조선 수군이, 곤양쪽 북쪽 죽도 뒤쪽 방면은 명군이 매복하고 있었다.

이때 11월 19일 새벽 2시경 사천·남해·고성에 주둔하던 시마즈 요시히로 島津義弘, 도진의홍 등이 이끄는 왜 연합함대가 수군 6만여 명과 500여 척의 함선을 이끌고 노량해협으로 들어선다.

적이 노량해협에 들어서자 매복했던 조선군과 명군, 왜군 간에 수상전투가 벌어지는데 이순신 장군은 우선봉, 명군 장수 등자룡 鄧子龍은 좌선봉, 본진은 명나라 수군 제독 진린이 맡아 총통과 불붙인 쇄을 이용한 화공으로 선제공격한다. 이때 양군이 근접한 상황에서 전투가 벌어지면서 혼전 양상으로 변하는데, 왜선 200여 척이 근접전으로 부서지고 죽고 부상당한 자가 수천에 이르렀고, 왜적의 시체와 부서진 배의 나무

판자·무기 또는 의복 등이 바다를 뒤덮었다.

적과의 혈전 끝에 왜군은 지탱하지 못하고 마침내 관음포로 도망가자 왜선을 추격하던 이순신 장군은 11월 19일 9시경 왜군이 쏜 총탄에 맞는다. 이순신 장군은 장남 이희에게 명해 방패로 자신을 가리게 하고 곡소리를 내지 못하게 했다. 이때 조카 이완은 이순신 장군의 장검을 빼 들고 마지막 해전을 독려한다. 이날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과 함께 명나라 등자룡 장군, 가리포 첨사 이영남, 낙안 군수 방덕룡, 홍양 현감 고득장 등이 탄환을 맞아 순직했다.

노량해전에서의 아군 전력은 조선 수군 83척, 군사 1만 6,000, 명나라 수군 63척 군사 5,000이었지만, 적선을 200여 척이나 침몰케 하고, 150여 척 파손에 100여 척을 나포하는 큰 전과를 거둔다.

500여 척 왜선 중 도망간 함선은 50척 정도였다. 그러나 고니시 유키나가는 묘도 옆 수로를 타고 도망간다.



이순신 장군은 서애 류성룡의 추천으로 정읍 현감에서 7등급 특차해 임진왜란 1년 전인 1591년 2월 13일, 전라 좌수영 수군절도사에 올라 함선과 군사·군량미를 확충하고 거북선을 건조해 왜의 침입에 철저하게 대비함으로써 한산도대첩 등 수많은 해전에서 전승했다.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의 개전일인 11월 18일 밤에 “이 원수만 무찌른다면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라고 하늘에 빌고 전투태세에 들어갔다. 또한, 순천 왜교성의 해상 봉쇄 역시 한 놈도 살아 돌아가는 왜군이 없도록 함으로써 다음에 다시 조선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썰기를 박기 위한 방책이었다. 명군이나 조정은 굳이 최후 일전을 바라지 않았음에도 조국의 먼 미래를 생각해 일본에 치명타를 입힘으로써 조선의 기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싸움 막바지에 관음포로 추격하던 중 총탄에 맞아 “싸움이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고 유언하고, 조카 이면이 장군을 대신해 최후까지 전투를 지휘하게 했다.

만약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조선은 망했을 것이고 일본의 속국이 됐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순신 장군은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성웅’으로 찬사를 받는 것이리라.

류성룡은 이순신 장군뿐 아니라 권율 장군도 추천해 전라도 관찰사로 임명함으로써 수륙 양쪽의 간성을 세우게 했다. 또한, 요동으로 망명하려는 선조를 설득해 조선에 남아 항전토록 함으로써 외교를 통해 명나라의 참전을 이끌어내고, 명나

라에 군수물자를 제공했으며, 각 도에서 일어난 의병활동을 총지휘했던 이다. 더욱이 낙향 후에는 「징비록」을 저술해 후세에 참고하도록 함으로써 다시 국난을 당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영웅은 죽어야 영원불멸하다.”고 했다. 일설에는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갑옷과 투구를 벗고 붉은 용복 차림으로 군사를 독려하며 죽음을 자초했다고 한다. 당시 조정 정세가 이순신 장군에 유리하지 않아 류성룡도 낙향하고 김덕룡, 곽재우 의병장도 이몽학의 난에 연루됐다고 해서 문초를 받아 결국 김덕룡은 참형 당하고, 곽재우는 산속으로 잠적했다. 선조에 의해 죽임을 당하느니, 최후 일전에서 왜적을 섬멸하다가 산화하는 길을 택했을지도 모르겠다.

최근 일본은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위안부 강제 동원도 부인하며, 혐한 데모도 자행한다. 미국과 중국, 일본이라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가장 다루기 힘든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다. 모든 국정이 원활하고 상생의 정치를 이룩해 경제를 되살리고, 제2의 한강 기적을 이룩해야 함에도 보이는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일제의 마지막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가 조선을 떠나며 마지막 말로 한 말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울지 마라. 일본인이여, 우리는 조선과의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대동아 공영의 큰 꿈을 향해 나아가다 미국과의 일전에서 저서 이 땅에서 잠시 물러나는 것뿐이다. ... 우리는 다시 돌아온다.” ☺

